

## “역사와 나라, 생각해 볼 기회”

■ 23·24일 광주공연 ‘대한국인 안중근’ 연출 표재순씨



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또 윤동주도 마찬가지죠. 그자 ‘서시’를 지은 인물 정도로나 알고 있지 그의 삶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안의사는 자기가 이토우 히로부미를 쓴 15가지 이유를 당당히 밝혔습니다. ‘동양평화론’이라는 저서를 통해 자신의 사상을 표현했어요.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연극을 통해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번 작품에는 최수종 등 쟁쟁한 배우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표대표가 직접 연출,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안중근 역의 최수종씨는 10년만에 다시 연극 무대에 서는 건데 참 고마워요. 오래전부터 한번 같이 작업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훤히 수락했어요. 정혜선씨도 출연 분량이 많지 않아도 극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죠. 이번 작품은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연출하고 영상도 많이 활용했습니다.”



했으며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등을 지냈다. 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주최한 ‘방송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표대표는 MBC 드라마 ‘수사반장’을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1971년부터 18년간 880회를 방송한 ‘수사반장’의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드라마 ‘수사반장’ 가족 모임이 있어요. 최불암씨 모델이었던 당시 서울시 경찰국 형사과장 최중락 전 총경이 대표를 맡고 있고, 최불암·김상순·조경환씨 등 연기자, 연출자들, 스템들이 가끔 모여 회포를 풀죠. 남성훈씨, 여경이금복씨는 지금 돌아가셨고, 또 다른 여경이었던 김영애·오미희씨는 지금도 열심히 활동 중이죠.”

표대표는 하마다 새로운 역사 인물을 발굴, 연극화하는 작업을 계획할 예정이다.

“연극을 통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실을 다시 더듬어 볼 수 있는 게 역사란 걸 보여주고 싶어요. 과거의 죽은 역사가 아니고, 산 역사

는 구분이 없을 경우 모든 것을 ‘정사’로 받아들이기 쉬운니까요.”

드라마·뮤지컬 연출자로 이름을 날린 표대표는 88올림픽 전야제 등 짙직한 행사를 연출

### 18년 인기 드라마 ‘수사반장’ 가족 지금도 만나

### 최수종 등 스타 배우 출연… 요즘 시국과도 맞아

한 작품이다. 표대표는 지난해에는 윤동주의 삶을 다룬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무대에 올렸었다.

“요즘 학교의 국사 교육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연극이라는 틀을 통해서 우리 근세사에 묻혀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알리고 싶었어요. 자라나는 세대에게나, 또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나 모두 의미 있는 공연을 만들고 싶었어요. 서울 공연을 보신 분들이 요즘 시국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작품이라고 하시더군요.”

표 대표가 ‘역사 속 인물 찾기’에 나선 것은 많은 국민들이 그들의 삶을 잘 모른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안의사가 왜 이토우 히로부미를 저격했는

것인가?” 표대표는 ‘대원군’, ‘집념’, 조용필의 주제가로 유명한 ‘간양록’ 등을 통해 한국 사극계의 큰 획을 그은 인물이다. 그는 요즘의 사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금 사극을 제작하는 분들은 엄청 잘 만들고 있어요. 화면도 참 좋구요. 제작 여건은 저희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죠. 제사극을 찍을 때만 해도 민속촌에서 촬영할 수 있는 말이 딱 두 마리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역사에는 정사가 있고, 역사가 있고 또 휴전이 있는데 그 개념을 명확하게 나눠줬으면 해요. 시청자는 구분이 없을 경우 모든 것을 ‘정사’로 받아들이기 쉬운니까요.”

드라마·뮤지컬 연출자로 이름을 날린 표대표는 88올림픽 전야제 등 짙직한 행사를 연출

### 광주문화협회 청소년 독후감 공모

광주문화협회(회장 오덕렬)가 제22회 청소년 독후감 및 제15회 근로청소년 문예작품(방송통신 및 대안학교)을 공모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광주지역 중·고등학생은 오는 7월 8일까지 자유주제로 광주문화 홈페이지(kj-moonh@hanmail.net)에 인터넷 접수하거나 광주시 동구 계립동 534-1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227-0811.

/김대성기자 mekim@kwangju.co.kr

### 김한아 가야금 독주회

#### 18일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

장구 장단은 이왕재(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차석)씨가 맡는다. 문의 062-350-4555.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 박홍수 ‘소리를 위한 드로잉’ ▶ 17~23일 인사동 갤러리 LIGHT

## “수묵의 담백한 미와 여백 느껴보세요”

7월 12일까지 ‘수묵, 본질과 조형’ 전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서 열려

현란한 색상으로 대표되는 현대미술의 거센 물결 속에서 수묵이 주는 담백한 미와 여백을 느끼고, 동양미술의 근간인 수묵화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본관장 강경화)은 오는 7월 12일까지 이 지역 대표 수묵화가인 정성봉, 정명돈, 이형우씨를 초대해 ‘수묵, 본질과 조형’전을 갖는다.

이들은 이번 전시에서 수묵의 전통적인 소재인 자연을 개성 강한 필선으로 표현한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정성봉씨는 활달하고 거친 필치로 그린 산수화와 풍속화를, 정명돈씨는 남종화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개성 있는 실경산수를, 이씨는 본질과 본성에 대한 탐구로 독특한 조형 세계를 구축한 작품을 각각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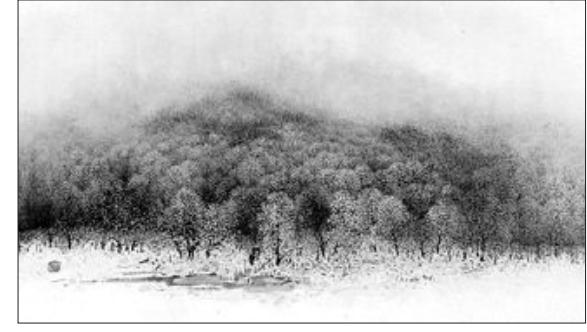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통해 독자적인 수묵화의 세계를 형성한 정성봉씨는 한국의 애산, 고항 가는 길 등 일상적인 풍경을 그린 ‘담양장날’ 등을 통해 고향에 대한 추억을 선사한다.

또 정명돈씨는 남도의 바다와 섬, 아담한 야산에 담긴 서정적인 감성을 자극하고, 이씨는 주상성이 가미된 반복적인 점찍기 기법을 통해 수묵화의 현대화를 모색한다.

정경화 분관장은 “이 지역의 대표 회화인 남종화는 지역민의 삶과 정서를 배경으로 성장한 문화적, 정신적 가치”라면서 “현대 미술에 밀려 전통 수묵화에 대한 관심이



정성봉 작 ‘담양장날’



정명돈 작 ‘가을산’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전시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222-357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박홍수 ‘소리를 위한 드로잉’ ▶ 17~23일 인사동 갤러리 LIGHT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조형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박홍수씨가 17~23일 광주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인사동 갤러리 LIGHT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소리를 위한 드로잉’을 주제로 묵향 그윽한 한국화를 선보인다. 남도 씹깃고, 판소리, 산조 등 전통 소리를 봇의 흐름과 색의 조화를 통해 표현한 작품들이다.

또 물, 바람, 꽃, 구름, 풀, 하늘, 바다 등 자연의 생명체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리도 수묵과 간결한 붓놀림을 통해 표현했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회화과를 나온



‘풍경+소리’

뒤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그는 광주, 서울, 대구, 일본 등지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광주시미술대전과 무등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김해인 시인 ‘별들의 사원’ 폐내



였지만” 지금은 각종 위기에 처해 있는 ‘지구별’ 상황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을 펼쳐 보인다.

김 시인은 강진 출생으로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 시집 ‘까마귀’, ‘사못 데모델’에서 달과 자고 싶다’, ‘기념사진’, ‘달에게 보내는 연사’ 시집 ‘내 마음의 적소, 동암’, ‘이화’(梨花) 등을 펴냈다.

〈고요아침·8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해인 시인은 “지구별” 상황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을 펼쳐 보인다.

김 시인은 강진 출생으로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 시집 ‘까마귀’, ‘사못 데모델’에서 달과 자고 싶다’, ‘기념사진’, ‘달에게 보내는 연사’ 시집 ‘내 마음의 적소, 동암’, ‘이화’(梨花) 등을 펴냈다.

〈고요아침·8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문화협회 청소년 독후감 공모

광주문화협회(회장 오덕렬)가 제22회 청소년 독후감 및 제15회 근로청소년 문예작품(방송통신 및 대안학교)을 공모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광주지역 중·고등학생은 오는 7월 8일까지 자유주제로 광주문화 홈페이지(kj-moonh@hanmail.net)에 인터넷 접수하거나 광주시 동구 계립동 534-1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227-0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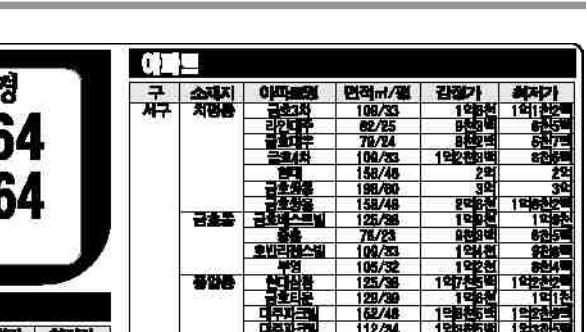
### 박홍수 ‘소리를 위한 드로잉’ ▶ 17~23일 인사동 갤러리 LIGHT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조형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박홍수씨가 17~23일 광주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인사동 갤러리 LIGHT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소리를 위한 드로잉’을 주제로 묵향 그윽한 한국화를 선보인다. 남도 씹깃고, 판소리, 산조 등 전통 소리를 봇의 흐름과 색의 조화를 통해 표현한 작품들이다.

또 물, 바람, 꽃, 구름, 풀, 하늘, 바다 등 자연의 생명체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리도 수묵과 간결한 붓놀림을 통해 표현했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회화과를 나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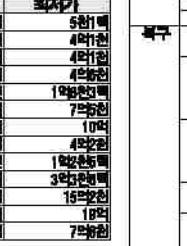


‘풍경+소리’

뒤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그는 광주, 서울, 대구, 일본 등지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광주시미술대전과 무등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김해인 시인 ‘별들의 사원’ 폐내



였지만” 지금은 각종 위기에 처해 있는 ‘지구별’ 상황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을 펼쳐 보인다.

김 시인은 강진 출생으로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 시집 ‘까마귀’, ‘사못 데모델’에서 달과 자고 싶다’, ‘기념사진’, ‘달에게 보내는 연사’ 시집 ‘내 마음의 적소, 동암’, ‘이화’(梨花) 등을 펴냈다.

〈고요아침·8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문화협회 청소년 독후감 공모

광주문화협회(회장 오덕렬)가 제22회 청소년 독후감 및 제15회 근로청소년 문예작품(방송통신 및 대안학교)을 공모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광주지역 중·고등학생은 오는 7월 8일까지 자유주제로 광주문화 홈페이지(kj-moonh@hanmail.net)에 인터넷 접수하거나 광주시 동구 계립동 534-1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227-0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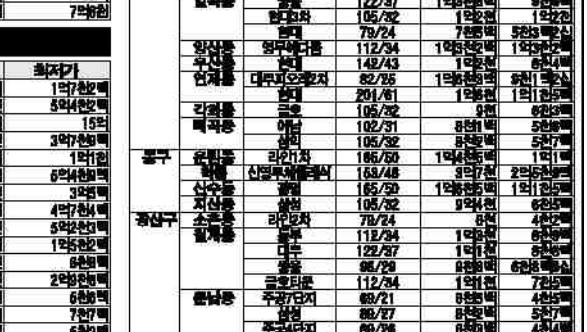
### 박홍수 ‘소리를 위한 드로잉’ ▶ 17~23일 인사동 갤러리 LIGHT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조형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박홍수씨가 17~23일 광주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인사동 갤러리 LIGHT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소리를 위한 드로잉’을 주제로 묵향 그윽한 한국화를 선보인다. 남도 씹깃고, 판소리, 산조 등 전통 소리를 봇의 흐름과 색의 조화를 통해 표현한 작품들이다.

또 물, 바람, 꽃, 구름, 풀, 하늘, 바다 등 자연의 생명체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리도 수묵과 간결한 붓놀림을 통해 표현했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회화과를 나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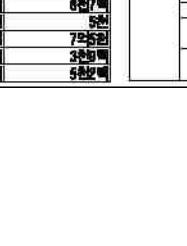


‘풍경+소리’

뒤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그는 광주, 서울, 대구, 일본 등지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광주시미술대전과 무등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김해인 시인 ‘별들의 사원’ 폐내



였지만” 지금은 각종 위기에 처해 있는 ‘지구별’ 상황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을 펼쳐 보인다.

김 시인은 강진 출생으로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 시집 ‘까마귀’, ‘사못 데모델’에서 달과 자고 싶다’, ‘기념사진’, ‘달에게 보내는 연사’ 시집 ‘내 마음의 적소, 동암’, ‘이화’(梨花) 등을 펴냈다.